

필리핀 大學教育의 改革 動向

白 賢 基
(유네스코 APEID院長)

오늘날 필리핀에서는 政治的 不安定을 극복하여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大學教育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각성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大學의 自治·自律權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聖域이라는 哲學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많은 노력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1. 필리핀 大學의 歷史的 背景과 概觀

1) 大學의 發達과 類型

政治·社會·經濟的 變化 發展이 그렇듯이 필리핀의 大學教育 또한 그 나라의 獨特한 歷史的·現實的 興件의 所產이라고 말할 수 있다. 7,000 개가 넘는 섬에 80 중에 달하는 言語를 가진 복잡한 상황 속에서 400년 가까운 外國의 植民地 統治下에서 살아 온 그 나라의 모든 教育, 특히 大學教育은 이러한 歷史的 背景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1898년 이후 330년에 걸친 스페인의 통치하에서 필리핀의 高等教育은 오직 San Jose 大學과 Santo Tomas 大學校의 두 私立機關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San Jose 大學은 1601년 Jesuit 神父들에 의해 설립되었고, Santo Tomas 大學校는 1611년 聖도미니크(St. Dominic Order)에 의해 設立되었으며 이들 大學들은 1622년과 1785년에 각각 國王의 認定을

받았다. 宗教團體에 의해 設立된 이들 두 機關은 學父母 또는 後援者들에게서뿐 아니라 個人이나 宗教團體 등 多樣한 通路에서 資金 支援을 받아 운영되었다. 1734년까지는 科學, 哲學, 神學 및 로마法 또는 敎會法 등의 과목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醫學, 藥學, 人文科學 및 法律學이 設講된 것은 1871년 이후이다.

그러다가 1898년 美國이 통치하면서 民主主義의 原理와 思想이 소개되었고 이 民主思想이 특히 教育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영향으로 新教育 思潮에 입각한 初等 및 中等教育의 體制가 成立되었고, 그 후 1908년 그 나라 最初의 國立大學인 필리핀大學校(University of the Philippines)가 政府에 의해 設立됨으로써 國家가 비로소 高等教育을 關望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그 나라의 大學教育은 急激한 成長을 계속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서 가장 多樣하고 광범한 高

等教育 體制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1년, 2년, 3년제의 技術·職業學校뿐 아니라 4년제 學部課程과 碩·博士課程까지 포함하는 광범하고 多樣한 體制로 되어 있다. 그 나라의 高等教育機關도 國立大學(校)과 私立大學(校)의 두 가지 型態이다.

國立大學(校)은 다시 3가지로 分類되는데 그것은 ① 憲章宣言된(chartered) 大學(校), ② 非憲章宣言 大學, ③ 地域社會大學(communitary colleges)이다. 憲章宣言된 大學이란 유럽式 大學의 特典과 學位 또는 權利에 대해 政府가 公式文書(즉 憲章)로 선언하고 인정하여 지원하는 기관이며 이 大學들은 그 憲章에 따라 自治的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이 大學들의 행정과 운영은 이른바 評議會(Board of Regents)라는 自治機構에 일임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1987년 현재 여기 속하는 大學들은 78개(60개 單科大學과 18개 綜合大學)에 이르고 있는데, 이 수자는 전체 高等教育機關 1,014개 중 약 8%에 이른 셈이다. 필리핀 教育機關의 한 가지 특징은 教育 段階가 높아감에 따라 政府의 責任은 비교적 감소되어 國民學校에서는 95%가 公立學校인데 반해 中等學校(中·高校 구별없이 4년제)에서는 50%, 그리고 高等教育에서는 겨우 10% 수준이 政府 傘下에 있다. 그러므로 필리핀의 大學教育은 주로 私立機關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非公認大學도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1년, 2년, 3년제의 中間段階 職業學校이며, 대개의 경우 學位는 없고 資格證만 주는 學校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 文教省(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DECS)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大學이다. 이들 非公認 國·公立大學은 전체 高等教育機關의 약 9%인 90개가 있다. 끝으로 또 다른 國·공립 기관인 地域社會大學은 地方政府가 설립 지원 또는 관리하여 大學課程을 이수시키고 있는데 현재 28개교가 존재하며 이들은 'barangay'라는 農村中等學校 출신자를 위한 大學이다. 대개 1년제로 高等學校 教育의 보충 과정 또는 助産員 教育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은 教育 및 人文·社會系列의 2년 과정을 이수시키는

곳도 있다.

필리핀의 高等教育은 90%가 私立財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들 私立大學(校)도 ① 私立 單科大學 및 綜合大學校, ② 私立 技術·職業學校로 구분되며, 특히 私立 技術·職業學校는 非學位 高等教育 과정이다. 현재 818개의 사립 高等教育기관이 있으며 이것은 전체 高等教育기관의 81%에 해당되며, 그 중 53개가 綜合大學校이고 510개가 單科大學이며 나머지 255개가 技術·職業學校이다(DECS, 1987). 또 이들 私立大學들의 반은 宗教團體에 속하며 그 대부분은 天主敎 財團이고 나머지는 沈禮敎, 물몬敎, 長老敎 기타 新敎財團에서 운영하고 있다. 宗教集團 다음으로 큰 私立大學 運營 集團은 個人所有機關(proprietary institutions)으로서 이 大學들은 地方 靑年에게 教育의 기회를 주기 위해 富裕層 家族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거나 하나의 엄연한 企業體로서 설립되어 공개된 株式會社로 운영되고 있다. 그밖에 少數이긴 하지만 '財團(Foundation)'이라고 불리는 非營利的·非宗教的集團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는데 이 大學들은 社團法人 規定에 의해 운영되어 政府 企業體로부터 長期 借款을 이용하거나 稅金 免除나 輸入關稅 免除, 기타 다른 財團 收入에 부과되는 稅金 등이 면제되는 惠澤을 받고 있다.

2) 大學 및 學生의 分布와 特色

최근 필리핀 高等教育기관에 在籍하고 있는 학생 수는 전체 形式教育機關 재적생의 약 10%에 해당될 만큼 성장함으로써 그 나라 現實에서는 多분히 無計劃의이고 急進의인 現狀이라고 批判되고 있다. 이러한 實情 때문에 새로 設立되는 많은 私立大學의 施設이 不良할 수밖에 없고 특히 資格 있는 敎授陣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어서 결국 大學教育의 質的 低下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나라에서는 私立大學들이 劣勢라는 뜻이 아니며 國立인 필리핀大學校를 제외하고도 私立大學(校)에 名門校가 많다.

그 나라는 아시아 地域에서 독특하게 初·中等課程이 10년이기 때문에 대개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2년이 짧다. 그것은 初等學校 6년에

中等學校는 中·高校 구별 없이 4년으로 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이 현상이 오늘날 필리핀의 고등교육기관의 需要를 자극하여 大學, 특히 私立大學의 급격한 팽창을 초래시켰다. 따라서 大學에 많은 問題가 야기되게 했다고 指摘되고 있다. 이러한 學制上의 차이 때문에 다른 나라의 正規大學院 入學 資格을 얻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4~'85년에 國·公·私立과 學位 및 非學位課程에 在籍하고 있는 학생 수는 1,544,525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35%인 547,844 명이 經商系이고, 다음이 工科系로 17.83%(275,422명), 그 다음이 教師教育 領域으로 7.04%(108,704명)이다. 이 나라에서는 經商系가 가장 人氣가 높고 生産領域도 점차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工科系의 높은 재적생 비율에서도 알 수 있다.

大學校 또는 大學生의 集中 傾向을 보면 전체의 37.92%인 583,678 명이 수도 마닐라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영역들(regions)에는 6~8%씩의 낮은 집중 현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首都 密集現狀 때문에 政府나 知識層에서는 이들 首都地域 大學의 地方分校의 확장과 새 大學의 地方 設立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大學의 入學 要件은 國家에서 실시하는 大學 入學 考查(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NCEE)에서 좋은 成績을 얻어 합격해야 한다. 이 試驗은 初等學校 6년과 中等學校 4년을 마친 사람에게 國家가 시행하는 것으로 應試者의 40%가 합격권이 된다. 그러나 필리핀 大學校 같이 위의 NCEE 이외에 大學 자체의 入學 試驗을 추가하고 있는 大學도 있으며, 또 大學에 따라서는 知能 檢査나 性格 檢査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追加的 檢査나 考查에서의 能力은 그런 능력을 배울 시간 여유가 있거나 資源이 있을 때 숙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富裕層 또는 特權層 子女에게 有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大學 入學要件은 學生에 대한 適切한 선별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결국은 NCEE 자체가 生活 條件이 불리한 志願者에게 公平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NCEE와 추가 고사 이외에 대개 中等學校의 成績이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51%의 私立大學에

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成績을 받은 사람에게 入學을 허용하며 그 가운데 비교적 좋은 大學에서는 7.5% 이상의 中等학교 성적인 자에게 入學을 허락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中等학교 성적 기준에는 특별한 標準 水準이 정해 지지 않고 있다.

大學 入學에 있어서는 또 學費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특색이다. 이 문제는 특히 學生의 學費를 主收入源으로 하고 있는 私立大學이 해당되는데 納入金 策定은 거의 大學當局이 決定하기 때문에 學費를 많이 요구하는 私立大學(校)에는 貧困層 子女가 入學을 꺼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大學이 타격을 받게 되어 마침내 閉校의 위험까지 있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의 子女들은 能力이 있어도 돈이 조금 들고 能力이 적은 學生을 받아들이는 낮은 교육 수준의 大學에 갈 수밖에 없으니 學費로 인해 좌우되는 그 나라의 大學制度는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는 不公平한 제도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科目이나 課程에 따라 學費를 차별 있게 남부하는 體制가 있으며, 가령 醫學이나 工學系에서는 높은 學費를 부과하기 때문에 가난한 家庭의 子女는 學費가 싼 經商系나 人文系 또는 教育系에 志願할 수밖에 없다고 批判되고 있다.

필리핀의 大學教育은 美國의 影響이 크기 때문에 그 실체는 美國의 大學을 많이 모방하고 있다. 教授의 教授計劃表(syllabus)에 따라 自主적으로 공부해 와서 발표하고 토의하면서 教授의 조인과 보충을 받는 學生主導의 講義 形式이라든가 모든 사람을 위한 大學(university for all)이라는 原理의 실현, 이와 관련하여 특히 職場人을 위한 광범한 教育 機會의 부여 등 많은 면에서 美國의 樣相과 傾向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 나라 大學은 英語로 講義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많은 심과 言語로 인한 의사 소통의 곤란 때문이라 한다. Tagalog 語가 母國語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아직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지만 그 言語 普及을 위한 政策的 支援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英語를 사용하고 거기에 通達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英文 資料의 消化 보급에 있어서는 큰 惠澤을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그 나라 大學(大學뿐 아님)에서는 女子 教授가 男子 教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특색이다. 가령 國立인 필리핀大學校의 예를 보면 여자 교수가 93%를 넘으며 師範大學의 경우는 96%에 이른다고 하며 여학생 수도 전체의 2/3를 점하고 있다. 일찍부터 女性의 社會 進出이 장려된 歷史的 背景과 더불어 男性 社會의 教育 및 敎職 忌避 傾向이 복합적 原因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여자 교수의 解釋처럼 그 나라는 男性 教育 못지 않게 女性 教育도 重視하며 “女性을 기르는 것이 곧 國家建設에 直結된다(Educate a girl, and you educate a nation)”는 信念에서 이루어지는 傾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女性 主導의 大學 教育이 갖는 특징이 어찌지에 관해서는 많은 糾明이 있어야 할 것 같다.

3) 大學의 行政

大學의 行政體制는 評議會 또는 理事會(Board of Trustees)이다. 1982년의 새 教育法에서는 이들 行政機構에 대해 해당 大學 行政의 전적인 權限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行政 管理 體制를 만들도록 認定하고 있다. 一般 私立大學(校)의 理事會는 대개 大學 財政의 株主들로 구성되는 것이나 宗教財團의 경우는 敎團要員 중에서 추천되어 구성되는데 이들 理事會의 책임은 大學의 전반적인 政策을 수립하는 데 있고 그 代表者가 總·學長이 된다. 총·학장은 그 大學의 目的과 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規則이나 規定 또는 理念이나 使命 등을 작성하여 실행하게 되어 있다.

國·公立大學(校)의 行政은 理事會 또는 評議會에서 맡으며 總·學長이 그 代表가 된다. 특히 憲章宣言된 大學(校)의 理事會나 評議會 議長은 文教省長官이고, 총·학장은 副議長이며 나머지는 사회 각계 각층의 代表 또는 一般 市民 중에서 선출된 사람을 文教省長官의 추천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필리핀大學校는 長官을 포함하여 12명으로 評議會를 구성하고 있다. 理事會나 評議會 임무는 大學의 政策을 수립하며 여러 가지 規則과 規定을 制定하고 커리큘럼이나 賞罰規定의 同意, 非課稅 教育 기자제 도입, 부총장과 학

장, 기타 부속 기관장, 학교장, 교수 등의 任命 同意, 입학금 및 기타 학비 책정, 研究費의 조성 지급, 施設 設備의 건축 설치 수선 등의 실천을 책임진다. 大學(校)에 行政委員會와 敎務委員會를 둔다. 前者는 총장을 비롯하여 副總長, 各單大學長, 기타 同級의 보직자로 구성되며 이는 여러 政策을 실천하는 기구이고, 後者는 총·학장과 學科長 및 모든 教授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理事會의 同意下에서 커리큘럼과 學生의 賞罰規定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各單科大學長은 그 大學의 行政責任者로서 教育方針을 수립하고 學生의 教育에 관련되는 業務를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특히 커리큘럼이나 교육 내용의 준비와 敎授法 개선 지원 등이 主要 責任領域이며 아울러 大學의 豫算을 편성하고 敎授와 講師의 추천 및 그들의 보수에 관한 추천까지 한다.

私立大學(校) 理事會의 權限과 機能에 관하여는 해당 大學의 財團規約 또는 그 부수 규정에 정해 있다. 學校의 規則이나 政策의 執行은 適法하게 任命된 行政責任者 또는 總長(school head)에게 맡기고 있으며, 總長은 理事會의 감독 하에서 理事會에서 승인된 政策과 規則을 집행하는 代表者로서 大學의 운영 및 行政에 대한 權限과 責任 및 責務性(accountability)을 갖는다. 私立大學(校)에도 敎務 및 行政委員會가 있어서 大學의 政策과 規定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理事會와 總長의 諮問 역할을 담당한다. 敎務委員會는 總長이 議長이 되며, 補職이 있는 教授와 一般 敎職員 대표, 職級別 教授 대표와 學父母 또는 學生 대표로 구성되어 커리큘럼의 준비와 그 채택의 제안, 학교의 발전 계획에 따른 커리큘럼의 계속적인 改廢 統속에 관한 사항에 책임을 진다. 한편 行政委員會도 역시 總長이 議長이 되며 副總長, 學長과 기타 同級의 보직자, 일반 교직원 대표와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다.

그 임무는 첫째로 敎務委員會와의 協議下에 大學의 발전 계획을 理事會에 提案하며 필요할 경우 그 計劃의 改正에 관한 事項을 책임지며, 둘째로 역시 敎務委員會와의 協議下에 敎授와 研究 및 社會奉仕의 세 가지 使命을 體系的·統一的으로 실천하는 데 따른 일반적인 行政 및

教育政策과 규칙 또는 基準 등을 制定하는 책임을 진다.

2. 大學教育의 問題와 改革 政策

1) 卒業者의 과잉 배출과 그 관련 문제

앞의 史의 背景에서 示唆한 바와 같이 오늘의 필리핀 大學教育에서 가장 심각한 問題는 과잉 배출로 인해 供給이 需要를 훨씬 앞섬으로써 나타난 現象들이다. 한 가지 예로 그 나라 大學教育에서 가장 人氣가 있는 工科系 卒業者의 1984년도 狀況을 보면 勞動市場의 수요보다 12,000명이 누적될 만큼 과잉 배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보면 다른 領域에서의 卒業者 과잉 배출 상황은 더 심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과잉 배출의 原因은 大學의 設立이 매우 쉽고 특히 中等教育 기간이 짧아(4년) 成熟이 더 필요하고 職業 準備를 위한 적절한 훈련이 더 필요해서라는 것이 주된 이유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몇 가지 이유들도 있다. 그 하나는 필리핀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大學卒業 또는 學位를 받으려는 志向이 강해서이며, 다른 이유는 그 나라 教育制度가 실질적으로 職業分野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또 社會 모든 領域의 需要가 높고, 優先順位에 속하는 敎科나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學生만을 입학하도록 하는 장치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大學卒業者의 供給 과잉 현상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하나는 有能한 敎授要員의 確保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으니, 가령 그 나라 經濟가 成長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惠澤이 大學에 一般化되지 못한 채 유능한 人材들은 보수가 높은 다른 職業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敎授職보다는 一般 企業體나 產業體를 선호하고, 심지어 같은 政府機關의 從事者가 되더라도 敎授職보다는 非敎授職을 택하는 경향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영향은 다시 敎授要員의 地域間 不均衡을 助長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碩·博士學位 所持者는 首都 地域에 集中되게 助長하고 있다. 이

것은 잘 訓練된 敎授는 都市에 집중해 있고 그렇지 못한 敎授는 農村 地域에서 근무한다는 해석이 된다.

다른 하나의 問題는 財政的 및 施設上의 制約 또는 不備이다. 大學의 90%가 私立大學이며 이들은 주로 學生의 納付金에 의존하여 運營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敎育의 現代化 또는 施設의 現代化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狀況이고 보면 學生들의 學費 증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學生의 학비는 계속 증대되지만 大學當局은 오히려 財政的 困境이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어서 問題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政府는 敎授나 敎育, 研究 또는 社會奉仕의 質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권장하면서 이를 위해 확보 증액을 허락하지만 根本的인 國家經濟의 제약 때문에 필요한 대로 증액할 수 없는 실정이며 學生과 學父母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도 어렵다. 이 곤란은 다시 敎授들의 봉급과 厚生福祉에도 제한을 가져오며 나아가 敎育效果 또는 敎育의 質的 低下 問題에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政府가 私立大學에 國庫補助를 해주어야 한다고 主張되고 있으나 아주 미미한 支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특히 研究用 施設의 落後性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령 마닐라의 한 지역은 완전히 大學街를 이루고 있으며 심지어 한 건물의 大學에 幼稚園부터 大學院까지 갖춘 곳이 있는 것만 보아도 그 施設 設備의 부족 현상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밖에도 大學卒業者의 과잉 배출은 失業率을 增大시키고, 두뇌 유출을 불가피하게 하며, 과잉 學力者의 고용이라는 不均衡을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實態는 마침내 反政府運動과 不法, 無秩序 또는 貧困의 加重現狀까지를 낳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2) 大學 改革을 위한 政策과 方向

이상의 問題점을 改善하고 大學教育의 機能을 높이기 위해 필리핀은 1982년의 새 敎育法(The Education Act of 1982)에 다음과 같은 政策 方向을 宣言하였다. 즉 質的으로 向上된 敎育을 꾀해야 하며, 中級 및 高級人力을 양성하고, 研究와 社會奉仕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강조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한 推進原則은 國·公·私立大學을 막론하고 모든 高等教育機關은 ① 衡平性(equality), ② 效率性(efficacy), ③ 質的高度化에 力點을 두어야 하며, 이의 실현을 통해 필리핀의 國家的 및 地域的인 발전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教育을 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文教省이 1987년에 세우고 있는 高等教育의 改革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의 目標을 제시하여 추진중이다.

첫째, 學生 개개인에게 國家 同一體感과 文化意識, 道德的 統合과 精神的 活氣를 증진시킬 수 있는 一般教育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國家 發展을 위해 技能의 需要에 따라 國家의 人力을 양성한다.

셋째, 國家의 指導性을 형성할 專門職 또는 專門領域을 개발 유지한다.

네째, 研究活動을 통해 새로운 知識을 발전시키고 人類生活의 質的인 改善을 위해 변화하는 社會의 필요나 조건에 效果的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知識을 적용한다.

이상과 같은 목표에 따라 각 地域은 그 지역의 獨自의 推進事項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特성적인 問題와 必要에 입각하는 現實的 狀況이 反映되도록 추구하고 있다.

필리핀 文教省은 이상의 政策과 目標을 두 가지 主要 프로그램에 의해 實踐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高等教育體制의 開發(higher education system development), ② 機關의 運營 管理(institutional management)이다.

첫째로 高等教育體制 開發 프로그램은 機能的이며 統合的인 高等教育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文教省內 高等教育局의 기능 수행을 提高하며 前記한 平衡性과 效率性 및 質 向上이라는 주요 전공 등의 推進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專門人인 教授뿐 아니라 非 專門人인 大學機關 職員의 발전을 위한 多樣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目標의 실현을 能率化시킬 수 있도록 組織 構造를 變更 修正하며 관련 영역에 관한 研究 機能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광범하게 周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文獻 출판 보급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로 大學 發展을 위한 機關의 運營 管理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高等教育機關의 學問的 발달과 行政의 能率化를 촉진시킬 수 있는 事業 또는 活動을 支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具體的으로 이 사업은 高等教育기관을 위한 諮問 프로그램(supervisory programs), 教授要員의 訓練 및 再教育 프로그램, 커리큘럼 開發과 學生을 위한 서어비스 프로그램 등을 조직 실천함으로써 그 과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필리핀 大學教育의 改革 動向

1) 大學과 學科의 설립 계획에 있어서의 改革

大學이 亂立되고 學科가 중복적으로 設置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이르러 大學 經營에서 計劃過程의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 of planning process)가 엄격히 추진되고 있다. 이 計劃過程의 制度化란 大學 行政家가 自治政策에 입각하여 행정 집행할 때 멀리 10년 사업에 연결되는 全般的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傾向에 따라 大學의 발전 계획에 대한 中央集權的 規定이 변화되어 大學當局이 教育, 研究, 그밖의 行政에 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解決하도록 하는 自律權을 크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行政에 관한 事項은 1982년 教育法 3條 1項(Rule III, Section 1)에 있는 學校設立 條項에 明示되어 있다. 그 條項에 의하면 “모든 教育機關은 國家 規定의 감독을 받으며 그 規定을 지켜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形式·非形式을 막론하고 教育機關을 設立하거나 어떤 教育 프로그램을 開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法에 의하거나 規定에 맞추어 設立 또는 開設하여 運營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國立大學(校)의 경우를 보면 單科大學이나 分校를 增設하고 새로운 學科를 設置하려고 하면 特別法에 의하거나 法에 의해 構成된 實行委員會의 추천에 따라 大統領의 同意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편 私立大學(校)의 設立이나 그 單大 또는 科 增設에 있어서도 역시 1982년에 改正된 教育法 施行令 2,706號 및 다른 教育 관련 규정에 따라 事前에 文教省의 同意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러나 1982년 9월 21일 이후에 設立된 私立大學은 어느 것이나 ‘필리핀社團法人法(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에 의해 非株式(non-stock) 法人體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大學마다 경쟁적으로 設置하므로 인한 學科 증설의 激增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旗船的接近法(flagship approach)을 도입하고 있는 傾向이 있는데, 이것은 大學들이 어떤 敎科課程을 設치하려던 같은 地域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大學間에 合議를 하여 實現함으로써 그 地域의 부족한 여러 가지 資源을 덜 고갈시키도록 노력하는 형태이다. 가령 어떤 大學院에서 그 大學院이 集中的으로 강조할 특정 영역을 분명히 개척하여 그 영역에 관해 특별한 研究를 하겠다는 점을 對外的으로 표방하고(旗船의 임) 마침내 그 研究領域에서는 地域의 中心地로 발전하는 傾向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資源들은 이 목적을 위해 交流되며 資源의 無分別한 擴散을 꾀하지 않는다. 이러한 旗船接近的 개념이 많은 大學들에 의해 受容되는 이유는 大學의 敎育事業이란 一般 企業體의 사업과 같이 利潤을 얻는 것이 核心이 아니라는 점을 認識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러한 旗船的 接近法을 實施하겠다는 확고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그 地域 大學들간에 合議가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이다.

한 예로 首都地域(national capital region)의 大學院 45개(8개 國立大學과 37개 私立大學)는 이미 1981년과 1982년 사이에 이 旗船政策을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들은 모든 大學校가 自己 大學院에서 모든 영역에 博士課程을 두는 대신 자기내 學校에서 대단한 強點이 있는 1~2개 博士 프로그램을 표방(즉 旗船)하게 하여 그 領域에서는 首都地域의 센터로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奉仕하기로 合議하고 이를 施行하고 있다. 따라서 이 旗船接近法은 博士課程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碩士課程은 大學마다 敎授陣과 圖書 및 그 資源이 기본 수준에 도달되기 이전에는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2) 大學의 業績評定 運動

大學 設立의 급증과 그에 따른 敎育의 質의 低

下를 豫防하는 方편으로 이 業績評定(accreditation) 제도가 활발히 확산되고 있다. 業績評定은 특히 私立大學(校)의 亂立으로 인한 敎育의 質의 低下를 막고 그 質이 最少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달된 方案으로서 주로 私立大學(校)들간의 自發的 機構를 통해 實施하고자 노력중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國立大學協議會까지 同調하고 있다. 현재 그 나라에는 이를 위해 3개의 私立學校 組織體가 있으니 그것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組織體마다 一聯의 評定基準을 設定하여 이를 토대로 평정에 임하고 있다.

① 基督敎學校協議會(ACSC :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and Colleges)

② 필리핀 大學業績評定協議會(PAASCU : Philippines Accrediting Association of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③ 필리핀 大學 및 大學校協議會(PACU : Philippin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國立大學들의 組織體는 별도로 존재하며 그 명칭은 ‘大學評價委員會(PACU-COA : Commission on Accreditation)’이다.

業績評定 組織 發足은 그 年輪이 그렇듯 길지는 않지만 이러한 評定機構를 組織함으로써 大學의 質이 向上됨은 물론 나아가 加入된 會員大學들이 좋은 學生을 유치할 수 있고 大學敎育의 기준을 높일 수 있으며 한층 중요하게는 이렇게 함으로써 政府의 간섭을 덜 받고 大學의 自律을 維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長點이 있게 된다. 따라서 결국에는 大學 자체가 利益을 보는 말할 것도 없고 社會와 國家에까지 득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특히 積極적으로 이같은 機構의 必要性을 주장하는 財團에서는 業績評定은 大學의 基準을 높이고 學問의 秀越性을 높이는 효과 있는 촉매제(catalyst)가 된다고 보고 그 기구에 가입된 大學의 敎育의 質에 관해 學生뿐 아니라 學父母와 社會로부터 合理的 水準의 保障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찬성자들은 또 이러한 大學 評定機構의 활동으로 國民들이 잘못된 大學敎育을 받고 卒業하지 않도록 豫防하고 專門領域에서 능력이 미달하는 專

門人(professionals)의 상태로 社會에 배출되지 않도록 豫防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私立大學 중 이 運動에 찬성하지 않는 大學이 더 많으며 이와 같은 評價過程을 통해 자기네 大學이 社會에 公開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 問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業績評定에 대한 是非가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그 機構들에서 만든 기준들이 教育的으로 부적절하며, 大學들 및 그 從事자들이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그같은 기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요 당하게 되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같은 상황하에서는 새로운 試圖나 改革은 부당하게 희생되고 오히려 平凡化(mediocrity)가 受容될 경향이 조장되며, 또한 自發的 機構인 評價協議會에 의한 평가라면 결국 이미 公認된(with permits or recognition) 현행의 大學으로 존립하여 교육시키는 것이나 같으므로 그같은 機構의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安定되고 사람의 認識이 정리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大學의 質態나 教育은 그 改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業績評定 運動은 그 나라에서 더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展望이다.

3) 커리큘럼과 教授法 改革

大學의 커리큘럼 면에서 발족되는 새 改革 動向은 그 나라의 현재 실정에 맞는 커리큘럼이라야 한다는 점을 第一의 條件으로 하여 階梯式(ladder type) 커리큘럼의 개발 보급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階梯式 커리큘럼'이란 學年이 올라감에 따라 높은 比率의 中途脫落者(drop-outs)가 발생하는 현재 실정에 대비해서 마련된 형태이다. 최근 調査에 의하면 필리핀의 전체 教育制度를 놓고 볼 때 이 중도 탈락자 발생 비율은 100명이 幼稚園에 입학하여 初等學校 2학년울 마칠 때 이들 중 33%가 탈락하고, 初等學校 3년에서 6학년울 마칠 때까지는 46%, 그리고 中等學校 4년울 졸업할 때까지는 63% 정도가 탈락되며 大學 졸업 때에는 겨우 17%가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들 脫落者의 教育을 위해 이른바 非形式 教育(non-formal educa-

tion)이 지극히 중시되고 있다. 大學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大學 入學生 중 1/2도 卒業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浪費를 極少化시키기 위해 이러한 階梯式 커리큘럼의 作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法學, 醫學, 獸醫學, 商業 및 敎育 등의 學科에서는 실현 가능한 階梯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大學 在學中의 脫落者가 大學에 在學하고 있는 기간에 최대의 利益을 얻도록 해 주는 커리큘럼이다. 그 구조는 전공 영역의 知識과 技能들을 系列化하고 그것을 가장 적절한 學年에 配列해서 이수하게 하고 있다. 이 원리에 따라 敎員敎育과 건축敎育에서는 이미 階梯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施行하는 중이며 農村醫學 커리큘럼에서도 實驗을 해 가면서 이와 같은 形式의 것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필리핀 大學들에서 이용되고 있는 敎育法上의 또 다른 改革 動向은 '모듈學習法(modular learning)'이다. 그 기본 가정은 學生들에게는 각자의 學習 進도에 따라 자기 자신이 학습을 조정하면서 自主的으로 학습할 수 있는 知的 裝置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필요 적절한 個人敎授를 받음으로써 能力도 없으면서 義務的으로 마지 못해 도우려는 敎授의 指導는 거절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결국 學生은 최소 시간에 최대 성과를 기할 수 있는 學習 體制가 결실히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必要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이 바로 모듈學習法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學生을 개인으로 分離시켜 그의 學年에 따라 時間과 場所를 택해서 자기의 進行 速度에 따라 學習할 수 있는 體制의 것이다. 이 自己學習用 모듈의 주요 要素는 標的 對象을 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目標나 概觀, 出發點 行動을 진단하는 사전 檢査, 矯正學習의 通路, 피이드백 계획, 目標와 事後檢査를 달성할 커리큘럼 활동 등으로 되어 있다. 그 주된 특징은 自己步調에 맞춘 學習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듈敎授法은 大學의 敎授法으로 커다란 可能性이 있으며, 특히 學年階梯의 구별이 없는 제도에서 가장 效果的이라는 장점 때문에 강력히 支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大學敎育 중, 특히 言語學 계통의 敎科나 數學, 社會科學, 기타 研究指向的

여러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自己步調에 맞추는 학습 또는 교수 체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갖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커리큘럼 內容 또는 계획된 教授意圖가 충분히 反映될 수 있는 모듈을 製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熟達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모듈을 만들기 힘들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 이 教授法의 效果는 半減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大學의 開放과 機會均等 政策의 改革

大學 運營에서의 한 가지 특징적 경향은 一種의 開放大學과 같은 形式의 것으로 組織이 잘 되고 信用도가 높은 會社나 機關의 幹部 또는 행정가들을 學生으로 받아들여 그들이 세미나 방법 또는 모듈 방법에 의해 大學敎育을 마치도록 하는 독특한 試案이다. 이것은 學習者가 속달 또는 획득한 非形式 敎育 機能들이나 非大學課程에서의 경험들을 形式體制와 꼭 같은 구조 속에 수용하려는 試圖이기도 하다. 四方이 壁으로 둘러싸여 폐쇄된 캠퍼스 안에서의 學習을 評價하여 認定하는 傳統的 體制에 비해 이 새로운 체계는 특히 非形式的 敎育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서 큰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이 경향은 大學의 質의 向上을 위해 大學의 亂立을 막고 大學을 적절히 統制해야 한다는 業績評定 運動의 精神 같은 것에 비교하면 相反되는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이 開放된 措置下의 敎育에서도 그러한 原則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꼭 같은 취지에서 地域社會 學習 센터(community learning centers)를 이용하고, 文化遺産을 傳受하고 經營하기 위해 視聽覺 教具 또는 媒體의 能率의 活用 方法을 꾀하는 경향도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또 放送 프로그램을 통해 放送通信敎育을 시키면서 아울러 국가 발전까지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시키는 등의 助長을 함으로써 필리핀에서는 敎育을 통해서 그 나라의 國民的 希望이나 目標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점점 강력히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다른 次元의 開放政策이면서 하나의 機

會均等 政策이 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가난 하지만 유능한 學生을 위한 長期的인 敎育革新 프로그램으로서 그것은 敎育에 대한 民主化된 接近(democratizing access)'이라는 政策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政策은 가난하지만 知的으로 特出한 學生에게 敎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精神은 이미 그 나라 憲法 15條 2項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國家는 가난하고 有能한 學生에게 獎學金을 마련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5條 9項에는 "장학금, 貸與 장학금, 기타 다른 形式의 誘引策으로 特出한 能力을 가진 市民을 支援해야 한다"라고 明記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大量 貧困을 없앤다는 새로운 分配政策의 一環으로 試圖되면서 한편으로는 國家가 요구하는 유능한 指導者를 양성한다는 두 가지 目的에 연결되고 있다. 즉 지도자는 大衆文化에 뿌리박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抱負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大衆 속에서 연유된 指導性이 필요하다는 發想에서 나온 경향이다. 그래서 大衆으로부터 未來의 指導者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大衆을 적절하게 敎育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目的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獎學金 제도가 설치되어 실현되고 있다. 이렇듯 가난하지만 특출한 學生에게 敎育의 機會를 주기 위한 계속적인 國家的 關心과 政府의 努力이 특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곧 '政府獎學金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學生의 父母나 保護者의 연간 총 수입이 6,000 페소 미만일 때 그들의 學校 成績과 獎學生 選拔 試驗 결과에 따라 4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受惠者들에게 學生으로서 적절한 生活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매년 그 支給額은 增額되고 있으며 圖書費까지 지급되고 있다.

그밖에도 이 나라 政府에서는 有能한 大學生을 다른 特惠對策으로 돕고 있는데 그것들은 論文支援金, 卒業手當, 論文研究者에 대한 2개월의 生活手當, 寮查料 지급 등이다. 대개 이러한 獎學金 프로그램은 道 또는 市가 主導하여 農村中等學校 學生들이 이 선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특히 文化 수준이 높은 地域社

會에서는 ‘全國 統合 研究支援費 프로그램(National Integration Study Grant Program)’을 조직하여 해당 學生에게 수업료와 다른 學費 및 圖書費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이 나라 政府에서는 南部 필리핀에서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長期的이며 平和的으로 해결하기 위해 反抗集團에 있다가 轉向한 사람에게는 特別獎學金을 支拂해 줌으로써 그들이 政治的·經濟的·社會的으로 安定된 市民이 되도록 돕고 있다. 나아가 1976년에 제정된 ‘教育支援法(Education Assistant Act 또는 Study Now Pay Later Plan)’은 가난하지만 有能한 學生을 위해 더 광범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低所得層의 특출한 능력을 가진 子弟들에게 優先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農業, 工業, 다른 技術系의 專攻學科에 在學하고 있는 學生들에게는 學費 貸與를 하고 있기도 한다.

5) 教師教育의 새 動向

과거와는 달리 教師 부족 현상이 없어짐에 따라 教師의 質的 向上을 위한 改革 노력도 傾注되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1983년부터 새 初等教育課程 실시와 함께 도입된 資格證 제도의 改革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幼稚園과 初等學校 教師를 위해 새로운 資格證으로 初等教育學士(Bachelor of Elementary Education : B.E.Ed), 中等教師를 위해서는 中等教育學士(Bachelor of Secondary Education : B.S.Ed), 그리고 實科系 教師의 것으로는 農業教育學士, 實業教育學士, 商業教育學士 등으로 改編하여 教師 養成의 質的 向上을 꾀하고 있으며 1986년 이후부터는 해당 수준 또는 영역의 資格證을 갖지 않는 자는 教師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새 教師 資格證 제도에 있어서는 敎養教育을 크게 강조하여 初等教師의 경우 총 144 학점(units) 중 107 학점, 그리고 中等에서는 총 176 학점 중 99 학점을 이수하며, 初等的의 나머지는 모두 敎職科目을 이수하도록 하고 中等의 경우는 敎職科目 32 학점, 專攻必須 30~36 학점, 그리고 專攻選擇 6 학점을 취득하도록 요구하여 敎養과 敎職을 強化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教師教育 改革 動向

은 教師教育을 위한 커리큘럼의 改編에서 발견된다. 1983년의 새 教育法과 더불어 실시하고 있는 새 初等學校 커리큘럼(New Elementary School Curriculum)’을 能率的으로 다룰 수 있는 教師 養成을 한다는 데 目的이 있다. 1983년 初等學校 1학년 入學者부터 이 새 커리큘럼에 따른 敎育을 시작하여 1988년까지 初等學校 커리큘럼이 완성되면 1989년부터 1992년까지 中等教育이 이에 따른 새 커리큘럼을 실시하며 教師도 이에 對備하는 中等教師를 養成하는 計劃이 실시중에 있다. 이렇듯 새 커리큘럼의 實施와 결부하여 1986년부터 初等教育學士 및 中等教育學士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이 전면 실시되게 되었다. 그 구체적 目標은 ① 體系化된 知識을 能率的으로 가르칠 수 있고, ② 有能한 學習 促進者이며, ③ 眞實된 人本主義者가 됨으로써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또는 專門性 면에서 발달된 役割者를 養成하는 데 있다. 그 內容을 보면 敎養教育을 강조하며 거기에서는 學生에게 필리핀語, 英語 및 스페인語 등 세 가지 言語를 가르치고 社會系 과목을 통해서 그들이 社會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觀點을 넓히며 科學·數學敎科를 통해서 학생에게 理論的·實驗的 經驗을 마련해 줄 수 있는 能力을 기르는 目的을 두고 있다. 敎職科目에서는 學生의 敎授(teaching)에 관한 心理學的·哲學的 및 社會學的 理解를 하고 敎授와 研究, 評價 등의 敎職 技術을 발달시키는 데 主限하고 있다. 中等教師에게 있어서는 初等教師의 敎養과 敎職科目 이외에 專攻敎科를 必須와 選擇으로 구분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實科系 中等教師 資格을 위한 커리큘럼도 같은 原則에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綜合大學校의 師大, 單科教育大學, 文科大學 등 어떤 형태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에는 差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세번째의 改革 動向은 教師教育의 실시를 위해 多樣한 教師教育 模型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教師教育이 바람직한 未來의 必要와 要求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前提에서 촉진되고 있다. 그 模型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單線型(one-stream)의 커리큘럼을 비롯하여 技能本位型(competency-based),

實習本位型, 階梯型 및 統合型 등이 있다. 單線型 커리큘럼이란 初·中等 두 수준의 教師에게 共通的으로 필요한 知識 內容과 敎職敎育을 하나의 과목으로 統合하여 실시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인접 敎科들은 敎育 基礎敎科에도 하나의 多學問的(multi-disciplinary) 및 統合的 接近을 한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과거의 實習 또는 인턴십(off-campus internship) 대신 實驗的 經驗을 강조하는 특색을 지닌 모형이다. 技能本位 模型은 教師의 發展 領域을 具體的 遂行 技能(competency)으로 분석하여 그 技能 하나 하나를 실제적으로 훈련시키는 모형으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준비와 敎育的 運營 管理이다. 한편 實習本位 커리큘럼은 Pangasinan 大學校에서 시도되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 특색은 實驗的 研究를 강조하여 學生 및 地域社會와 直接的이고 積極的으로 접촉하고 작용함으로써 유능하게 教師를 훈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大學 1학년 때부터 實習 經驗을 갖게 하며 理論과 實際가 統合된 敎育을 받게 하고 있는 모형이다. 階梯 커리큘럼은 前述한 바와 같이 現實性에 一致한다는 原則을 敎師敎育에서도 受容하여 學生이 4년 졸업 이전에 중도 탈락할 경우 1년만을 마치면 敎師補助人(teacher aide), 2년을 마치면 補助敎師(teacher assistant), 3년을 마치면 準敎師(teacher associate), 그리고 4년을 졸업하면 正敎師와 해당 學位를 주게 하고 있다. 끝으로 統合敎師型은 하나의 實驗(pilot)案으로 初等敎師와 中等敎師를 統合시켜 하나의 資格制度로 훈련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모형이다. 따라서 그 目的은 初等 및 中等學校 어디에서나 가르칠 수 있는 敎師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 나라의 地理的 條件에 적절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째로 現職敎育에 있어서도 다양한 敎育 형태의 改革이 나타나고 있다. 近者의 現職敎育도 全國 規模의 實施를 위해 開發된 새 커리큘럼 또는 새 敎育 資料를 活用하기 위한 것이 主目的이다. 1970년대까지의 現職敎育은 대단히 中央集權的이었으나 '80년에 와서는 地方分權的 傾向으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文敎省뿐 아니라 다른 政府 部處와 私設機關에서까지 協助하여 現職敎

育을 實施함으로써 人的·物的·財政的 節約을 하면서 敎育의 效果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敎育 內容에는 職業 및 生産 技術 향상을 위한 것, 健康과 營養을 위한 것, 農耕地 改革 또는 科學 技術을 위한 것은 물론 그밖에 政府의 重要 施策까지 포함되고 있다. 나아가 敎職 成長에 필요한 새로운 理論이나 技術과 관련된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근래에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現職敎育의 형태로는 學校單位(school-based) 現職敎育이 있다. 이 형태는 어떤 上級 資格 또는 外的 補償 보다는 순수히 敎師의 敎職 成長을 위해 學校 單位로 실시하여 그 학교 또는 그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主目的이기 때문에 더 現場中心的인 이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이용되는 敎育 方式은 ① 自己 成長의 計劃 또는 계획 수정, ② 새로운 敎育 理論이나 革新에 관한 동료간의 연구 발표, ③ 協議會, ④ 學校 필요의 분석, ⑤ 연구 수업, ⑥ 外部 專門人士 초청 강의의 순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報告이다. 이러한 現職 初·中等敎師의 敎育뿐 아니라 職業(pre-service) 敎師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敎授들에 관한 繼續敎育도 대단히 강조하며 지원하고 있다. 가령 學位課程 履修를 위해 行政的·物質的으로 支援할 뿐 아니라 長期 研究休暇를 주거나 研究費 지급, 研究協議會 지원이나 專門職 團體 가입 권장 등에 관한 특별 대책이 매년 補完 增大되고 있는 가운데 職業敎育을 위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敎師敎育者의 敎育을 증시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敎授 方法이나 敎授 戰略에 숙달된 初·中等敎師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敎授들 자신이 말에서뿐 아니라 行動으로 그것을 實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前提下에서 그러하다.

4. 맺는 말 : 未來의 展望

오늘날 필리핀은 그 政治的 不安定을 극복하여 政治的·社會的·經濟的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大學敎育을 실시하기 위해 政府가 積極的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核心的 強調點은 大學이 國家 發展의 促進者 역할을 담당하며 그것을 主導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이 크게 問題視되고 있다. 그래서 大學의 業績評定 制度가 강력히 권장되고 있는 터이다.

이 업적 評定 기구에 가입된 大學 또는 敎員 養成大學에 대하여는 特別研究支援金을 비롯하여 다른 特惠를 주는 등의 對策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가위 大學에 國家의 將來를 맡긴다는 이 새로운 각성은 더욱 심화될 展望이다.

아울러 大學의 施設 設備의 확장 개선을 위한 長·短期 대책도 무르익어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大學의 自治·自律權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聖域이라는 哲學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많은 노력을 볼 때 부럽다는 생각이 크다. *

(參 考 文 獻)

- Bustos, A. (1986), *Innovations and new initiatives in teac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DECS. (1987), *Tertiary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 Gonzalez, E.A. (1987), *The Secondary education curriculum: A proposal*, Bureau of Secondary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 Santos, F.P. (1985), *National case study on higher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Office of Planning Servic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 UNESCO (1982),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